



## 예화(실화) 자료 5 편

임종만

(양산, 물음교회 담임 목사)

### ① 신앙의 위인 손양원 목사

부산 고려신학교 초대 총무를 지낸 손양원 목사는 세계 교회사에 비  
슷한 유례조차도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큰 인물이었다.

그는 일제말 신사 참배를 항거함으로 끔찍한 옥고를 6년이나 치렀으  
며, 평생 애양원 교회를 목회하다가 순교까지 했으니 나환자 교회 목회  
로 유명한 성 다미엔 신부보다 나은 분이였다.

또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안재선군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일  
은 기독교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 아들의 장례 때, 미국 유학이 좌절되었으나 미국보다 더 좋은 천  
국에 두 아들을 보내었으니 감사하며, 죄인의 가정에 하나도 뒤틀한데 들  
이나 순교의 제물로 받아 주시니 감사하고, 또 살인자를 나의 양자로  
삼게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재선 군을 앗히고 조반을  
먹을 때 입안에는 밥이 아니라 모래알을 씹는 듯했다는 그 인간적인 고  
뇌를 겪으면서 원수를 사랑했으니 첫 순교자 스테반보다 낫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가족을 가진 유대인을 살  
려 달라고 나치 장교에 청원하여 대신 죽은 꼴배 신부를 성자라 한다면  
6·25 때 나환자 교인들을 돌보다가 순교한 그는 실로 “양을 위해 목숨  
을 버린 선한 목자”가 아닐 수 없다.

그 분에겐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외모를 꾸미는 일이 없었다. '49년 11월, 여순 반란 사건으  
로 두 아들을 잃은 지 얼마 안 되어 부산 초량교회(당시 한상동 목사  
시무) 부흥 사경회 강사로 왔을 때 구제품인 빨간 여자 외투를 고쳐 입

였으나 키가 작아 그런지 흡사 외투가 걸어오는 것 같았다. 그런 모습으로 전국을 누비고 다녔으니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둘째는, 주를 위해 돈을 쓰는 자였다. 여러 교회서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고 사례금을 받으면 그대로 신학교 운영을 위해 바치곤 했다. 당시 출옥 성도들과 교단의 부흥사들이 거의가 그랬다.

셋째, 쉽게 복음적으로 설교하는 분이였다. 예를 들면 개미 만 마리보다 병아리 한 마리가 낫고, 병아리 만 마리보다 소 한 마리가 낫고, 소 만 마리보다 왕자 한 분이 귀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죽음과 부활은 전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절대 가치를 가진 존재였다는 설명은 45년이 지난 오늘도 기억에 생생하다.

## ② 신앙의 승리자

한상동 목사가 1954년에 미국 국제 기독교 대회에 초청을 받아 가신 일이 있었다.

회의 참석 후 몇 교회들을 순방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가 간담회 시간에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을 한국말로 한번 소리내어 읽어 봐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때 한 목사는 롬 8:31~39을 소리내어 읽으셨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 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



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의 신앙적 승리의 개가는 한상동 목사의 경력을 들어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가 곧 자기의 생생한 신앙 간증이라고 받아들여지고 감격하였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때 그때 할 말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였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은 한 번도 마다 하시지 않고 언제나 받아 주셨다고 겸손히 간증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훌륭한 선배를 모셨던 것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는 그의 신앙, 그의 겸손, 그의 인생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의 지침을 삼을 만하다.

### ③ 이웃 사랑 — 가족 사랑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張起呂) 박사는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에 대해 회고하며 말하기를 “저는 어릴 때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별명을 ‘금강석’이라 붙여 주시고 늘 ‘이 애를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귀하게 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저의 신앙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고 했다(딤후 1:5 참조).

그가 팔순을 넘긴 요즘에도 매일 청십자 병원에 나가 무료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선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는 경성의전(京城醫專) 시험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의사가 되게 해 주신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소년 시절의 헌신의 기도가 그의 일평생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빌 2:13 참조).

졸업하고 당대의 명의를 얻던 스승 백인제 교수의 조수로 일하다가 평양의 기독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해방과 6·25를 맞았고 1·4 후퇴 때 ‘2,3개월이면 돌아올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차남 가용(서울대 의대 교수)만 데리고 남하였다.

피난지 부산에서 유엔 민사 원조처의 도움으로 영도에 차린 천막 병

원에서 오갈 데 없는 행여병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복음병원과 고신 의료원의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 사람들과 뜻을 모아 복음병원, 청십자 의료보험, 청십자 병원 등을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신앙의 힘이었으나 마음속 깊이 가족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불쌍한 이웃을 위해 일하는 만큼 복에 남겨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그리울수록, 걱정이 될수록 나는 더 열심히 가난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지난 여름('90년) 미국에 있는 조카가 북한에 가서 아내와 5남매의 편지와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들도 누군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장남은 약학 박사, 3남은 물리학 박사가 되었다고 하니 그저 감사할 것 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나에게 재혼을 권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결혼이란 한 번만 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살아서 아내와 만날 수 있기를 빌고 있지만 나이 팔십이 넘었으니 살아서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 ④ 열부(烈夫) 정인석 장로

우리 나라의 남녀는 한 해 40만여 쌍이 결혼하고, 5만여 쌍이 이혼한다는 통계청 분석이 나왔다(한국일보 '91년 10월 22일자 보도).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는 우리 나라 선남 선녀들이 만나고 결혼해서 함께 살다 이혼하거나 배우자 사망으로 홀몸이 되기도 하는 일련의 인생사를 통계 분석한 것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헤어지는 부부가 전체의 36%로 가장 많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고졸과 대졸 고학력자의 이혼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을 급증 요인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윤리와 도덕이 땅에 곤두박질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는 '향락,



사치, 마약 행위가 그 주범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증거이다. 예수님을 속에 모신 자는 이혼할 조건이 되어도 사랑하고, 참고 견딜 수 있다.

'50년도에 부산 삼일교회에 정인석이란 세례교인이 있었다. 부인이 산후 조리 중 나병이 발생했다. 백방으로 치료에 힘썼으나 더 심해질 뿐이었다. 부득이 수용소로 보내기 위해 한상동 목사를 찾아가 “이럴 경우 이혼해도 괜찮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침묵하신 다음 “할려면 할 수 있지요 … 그러나 평생 성찬에는 참석 못할 겁니다”고 대답하셨다. 이는 주님과 상관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니 이혼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자녀들을 두고, 병든 부인을 데리고 나환자 수용소에 들어가 30년을 같이 살았다.

그 지극한 정성에 감격한 나환자 교회 성도들이 절대 다수의 표를 모아 줌으로 장로가 되었다. 그리고 학습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해 첫 당회에 출석했는데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갔다. 그의 소원대로 한 목사님의 무덤 옆에 묻혔다.

남편을 위해 정조를 지킨 여인을 열녀라 한다면, 병든 부인을 정성껏 돌보다가 죽은 남자를 열부라면 어색한 말일까?

## ⑤ 순진하고 간절한 기도

“깨끗한 화장품” 에바스 회사의 명예회장 김한복 장로와 그 아들인 사장 김용근 장로는 '70년 초, 경남 고성에서 아버지는 철도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했고, 아들은 국민학교 교사직을 사직하고 부자가 받은 퇴직금으로 서울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경험 부족으로 얼마 후 밑천을 모두 날려 버렸고 온 가족이 객지에서 아사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들은 겨우 학습, 세례를 받은 초신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야베스처럼 부르짖으라고 대상 4:10, 곧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는 말씀을 가지고 권면했다.

그 후 그들은 새벽마다 교회당에 나와서 날이 환히 새도록 기도했다. 김한복 장로는 말하기 전에 “에 —”하는 버릇이 있다. 그의 심한 사투리 섞인 기도를 들은 대로 대충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에 —, 야베스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지여, 예수 믿으면 에 —, 영혼도 구원받고 에 —, 육신도 에 —, 잘 된다고 구러기에 우리 식구가 몽땅 믿었습니다! 고런데 에 —, 우리 생활이 말이 아닙니더! 한번만 봐 주이소! 그러몬 에 —,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할깁니더!”

한참 후,

“에 —,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망했다카몬 안 믿는 사람들이 손구락질 안하겠십니꺼! 고런골로 해서 에 —, 요번에 한번만 도와 주몬 이 은혜 평생 안 잊어버릴깁니더!”

또 한참 후,

“만일 안 도와 주몬 에 —, 옛날처럼 술먹고 담배 피우고 제사 지내고 온갖 짓 다할깁니데이! 고래도 괜찮습니꺼?”

또 한참 후,

“우짜겠는기요 우리 식구들 에 —, 하나님의 아들 딸 되도록 안 했는기요 에 —, 한번만 봐 주이소!”

몸을 흔들며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어 씨름하듯 하는 그의 기도는 얼마 후 응답이 되어 부자가 서울 등촌교회의 장로가 되었으며, 직원 약 4백인을 거느리는 큰 회사로 성장하여 국내외로 잘 팔리고 있으며 그 수입으로 주의 일을 크게 돕고 있다.

주여, 그들에게 계속 영육의 복을 야베스처럼 내려 주시옵소서.